

청소년의 아버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배경변인 연구

Study for the Father's Environment Variables and Father Image

최명선(Myung Seon Choi)¹⁾

조선화(Seon Hwa Cho)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how adolescent recognize their father according to the fa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was performed for 400 students in Seoul on the basis of two measuring tools that were adolescent's father image criterion developed from Seon hwa Cho, Myung seon Choi(2004) and semantic analysis criterion from Osgood(1957). Father image were inclined to friend when their father was younger. Adolescent were recognizing their father as a friend, advisor, and able man when their father had high level profession. On the other hand they felt father as a difficult being to make intimate relationship when their father had management occupations. Christian and Buddhist fathers were recognized as a advisor. Catholic and Christian father were showing less tired aspect rather than Buddhist and atheism father. Catholic and Buddhist fathers were recognized more active person. Adolescent were recognized their father as a friend, advisor, and able man when their father were high educated person.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아버지 상(father image), 환경 변인(environment variables).

I. 서론

현대사회는 크고 작은 변화의 연속이며, 인간들은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살아간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인

간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버지 역할과 모습의 변화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큰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영주(1995)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일제 시대 이후, 해방과 전쟁, 분단 속에서 어떻게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²⁾ 한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yung Seon Choi, Richard Wagner str. 91. zi. 01. D-66125 saarbruecken Germany.

E-mail : im4ever31@hanmail.net

재형성되어 현대의 아버지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본 결과 과거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지주요 존경의 대상이며, 위엄과 권위의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수행된 연구에서는 아버지는 경제적 도구이며(문미옥, 1983), 아버지의 역할은 정서적 안정이나 애정적 역할 보다는 경제적 인적 물적 환경조성의 역할이 더 크다(김미영, 1985)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이고 대화 상대자, 가정의 통솔자, 합리적 판단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였다(유영주, 1983; Lamb, 1987; Pleck, 1984).

그러나 점차 산업화와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고 경제적 부양자이며 권위와 위엄을 표상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변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아버지 상(像)의 변화는 사회적 상황과 변화를 떠나서 논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최명선(1998)은 1997년 IMF 시기에 아동 607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조사하였다. 아동들은 아버지가 힘들어 보인다(233명), 불안해 보이고 걱정을 많이 한다(133명)와 술과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잠을 못 주무신다(58명),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45명)와 어머니와 자주 싸우신다(6명) 등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정순화와 김시혜(1996)이 보고한 아동의 동시(童詩)에 나타난 아버지 모습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였는데 바쁘고 지치고 피곤한 아버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로 묘사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아버지 상(像)의 대두와 더불어 긍정적인 아버지 상(像)의 변화도 간과할 수가 없다. 앞의 연구(정순화 등, 1996)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자이며 책임자, 해결사와 같은 유능한 존재이고 자상하고 애정적인 모친적 모

습과,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 상대자나 조력자, 행동모델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멋지고 위대한 아버지로 표현되었다.

최근 아버지 상(像)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들을 잘 보여준다.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을 연구한 정은희(1998)는 아버지 상(像)의 요인구조를 ‘존경스런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꾸중만 하시는 아버지’, ‘일만하시는 아버지’로 나누었고, 김명희(1996)는 리더성 및 성실성, 모친적 따뜻함, 명랑성, 완고성, 비친화성으로 나누었으며, 조선화, 최명선(2004)은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상담자 아버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가정적인 아버지’, ‘삶에 지친 아버지’,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등으로 이미지화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현대의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 전통사회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변화되었고, 그 변화는 긍정적,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며, 분리된 부모 역할에서 혼재되고 조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이미지는 자녀발달 단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자녀의 발달단계와 아버지 역할의 변화에 대해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문자(1990)는 Erikson의 발달단계를 참고하여 6단계로 나누어 아버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 조선화(1998)가 구분한 6단계의 아버지의 역할특징을 개념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단계, 영아기(0-2세)의 아버지 역할로서 애착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단계, 유아기(2세 이후-7세)의 아버지 역할로서 이상적인 모습의 아버지 상을 그리는 시기로 설명할 수 있

다. 셋째단계, 아동기(7세 이후-12세)의 아버지 역할로서 이해의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단계, 청소년기(12세 이후-18세)의 아버지 역할로서 계몽의 시기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단계, 성인기(19세 이후-40세)의 아버지 역할로서 반응의 시기와 생산성의 시기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단계, 장년기(40세 이후)의 아버지 역할로서 두 가지 역할 즉,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에도 적응하는 시기로 설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아버지의 역할은 계몽의 시기로 많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 이미지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속하는 존경하는 인물을 본받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며,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와 인권을 존중하는 것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김중서 · 남정걸 · 정지웅 · 이종환, 1983).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이미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Grossman 등(1988)은 부모역할의 차이를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한 예측변인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요인, 결혼생활과 가정생활과 관련된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과거 부모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Rosenblatt(1974)는 양육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동에 대한 기대수준과 부모의 어린시절 경험, 문화적 가치, 부모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자녀를 갖게 된 동기,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의 직업, 종교 등이라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 상(像)이나 역할, 양육태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되는 변인은 사회의 변화, 자녀의 발달특성, 부모의 심리적, 환경적 변인 등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변인들이 아버지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밝

힌 연구는 많지 않지만 아버지 역할이나 양육태도와 같은 변인들과의 연구에서 그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을 밝힌 김영희, 최명선(2001)은 부모의 이미지는 부모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후속연구에서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버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첫 번째 작업으로 아버지의 직접적인 환경 변인이고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아버지 이미지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는 것도 큰 의의를 지닐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는 가정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그들의 제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다(송명자, 1996).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가족환경 변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미란, 1986; 김미영, 1985; 김성희, 1990; 김희숙, 1996; 오미경, 1990; 이신숙, 1988; 정은주, 1990; 정화영, 1993; 한선아, 1996)가 대부분이고 아버지 이미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 이미지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조선화·최명선(2004)이 개발한 아버지 상(像)척도를 통해 현대사회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아버지 상(像)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Osgood, Suci, 그리고 Tannenbaum(1957)의 의미분석법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화·최명선(2004)의 아버지 상(像)의 하위구조는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친구같은 아버지’, ‘상담자 아버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가정적인 아버지’, ‘삶에 지친 아버지’,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측정법의 하나인 의미분석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버지’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의미분석법은 Osgood 등이 발전시킨 심리 측정의 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사물, 인간, 사상, 사건 등에 관한 개념의 의미를 의미공간 속에서 측정하려는 것이다. 즉, 한 개념의 의미를 양극적으로 대비되는 형용사 군에 의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방향, 거리, 강도를 갖는 의미공간으로 포치시킬 수 있다는 측정이론이 밑받침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서의 의미분석법은 그 출발의 역사에 비해서 급속한 발전을 본 방법의 하나이다. 초기에는 주로 정치적 문제에 관련된 개념의 의미변별의 대상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의미분석법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인류학, 학습이론, 태도 및 가치관, 언어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광웅, 1977).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에게 지각되는 아버지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서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이미지를 ‘아

버지 상(像)’이나 ‘아버지 의미’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상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아버지 상(像)과 ‘아버지’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 이미지라는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변인을 측정하는데 다차원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접근으로 여겨진다.

아버지의 배경 변인과 청소년의 아버지 이미지와의 관계를 밝히는 본 연구는 청소년과 아버지 간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원인을 찾고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부모역할, 또는 성역할을 익히며, 건강한 발달을 이루는데 필요한 이론적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부모들의 부모교육이나 상담현장에서도 유용한 이론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은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아버지 연령, 직업, 종교,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의미는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아버지 연령, 직업, 종교,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 이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45.25%, 고등학생이

54.75%이었다.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48.00%, 여자 청소년이 52.00%이었으며, 자녀수는 외동이 8.52%이었고 2명인 경우가 69.92%로 가장 많았고 세 명이 17.54%, 네 명 이상이 4.01%로 나타났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58.19%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34.26%, 셋째가 6.89%, 넷째가 0.76%이었다.

2.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2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현대사회 아버지 상(像)을 측정해내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조선휘, 최명선(2004)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척도와 형용사 척도를 통해 ‘아버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Osgood 등(1957)의 의미분석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상(像) 척도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가 .96,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88,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89, ‘친구같은 아버지’ .77, ‘상담자 아버지’ .88,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72,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62, ‘가정적인 아버지’ .73, ‘삶에 지친 아버지’ .66,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84로 나타났다.

의미 분석 척도를 통해 아버지 이미지를 능력

(potency), 평가(evaluation), 활동(activity)의 세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의 이론적 배경은 Osgood 등(1957)의 의미분석법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에 근거하였으며, 구체적인 형용사 척도는 장동환(1964)의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근거하여 능력, 평가, 활동성의 각 요인별로 부하량이 .30 이상인 형용사 중에서 아버지 지칭어의 이미지 측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9쌍의 형용사를 선택하여 작성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9쌍의 형용사는 그 양극적 의미 사이를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각 세 가지 차원의 형용사 척도는 <표 1>과 같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과 평가, 활동성 차원에 대해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45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4년 7월 2에서 7월 9일까지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총 438부의 질문지는 응답이 부실한 38부를 제외한 400개가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의미분석 척도

능력 차원	평가 차원	활동 차원
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	착하다 - 악하다	빠르다 - 느리다
똑똑하다 - 어리석다	옳다 - 그르다	날카롭다 - 무디다
유능하다 - 무능하다	좋다 - 나쁘다	활발하다 - 둔하다

〈표 2〉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의 차이 검증

변 인	만 35-39세 (n=22)	만 40-44세 (n=131)	만 45-49세 (n=162)	만 50세-54세 (n=47)	F
	M(SD)	M(SD)	M(SD)	M(SD)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3.46(0.47)	3.57(0.67)	3.61(0.68)	3.63(0.75)	0.36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3.30(0.86)	3.17(0.86)	3.12(0.88)	3.24(0.83)	0.44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3.42(0.62)	3.43(0.88)	3.44(0.98)	3.19(0.93)	0.93
친구같은 아버지	2.89(0.75) a	2.84(0.83) a	2.58(0.77) b	2.74(0.79) ab	2.97*
상담자 아버지	3.65(0.62)	3.50(0.83)	3.45(0.82)	3.57(0.85)	0.52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3.13(0.59)	3.22(0.85)	3.14(0.85)	3.17(0.85)	0.22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2.68(0.73) c	2.99(0.75) b	2.93(0.80) b	3.24(0.90) a	2.86*
가정적인 아버지	3.47(0.69)	3.23(0.85)	3.10(0.79)	3.09(0.76)	1.74
삶에 지친 아버지	2.46(0.65) b	2.57(0.73) ab	2.75(0.84) a	2.78(0.93) a	2.52*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3.91(0.73)	3.84(0.81)	3.93(0.78)	3.74(0.68)	0.89

* $p < .05$ ** $p < .01$ *** $p < .001$, a, b, c, 는 Duncan 사후 검증

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아버지의 인구학적 배경변인인 연령, 직업, 종교, 학력 각각에 따라 아버지 상(像)의 하위변인과 아버지 하위 의미차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AS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¹⁾(아버지 연령, 직업, 종교, 학력)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 분석

<표 2>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아버지 상(像)의 차이를 분석한 변량분석 결과이다. 아버지 상(像)의 하위변인 중 친구 같은 아버지($F=2.97, p < .05$)와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

지($F=2.86, p < .05$), 그리고 삶에 지친 아버지($F=2.52,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아버지들이 그들의 청소년자녀에게 친구 같은 사람으로 가장 강하게 지각되었고, 그 다음이 50대 초반, 40대 후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와 삶에 지친 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청소년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지치고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표 3>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청소년의 아버지 상(像)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아버지 상(像)의 하위변인 중 친구 같은 아버지($F=2.08, p < .05$)와 상담자 같은 아버지($F=2.53, p < .05$),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F=2.09,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친구 같고, 상담자 같은 사람으로 가장 강하게 지각하고, 단순노무직 근로자인 아버지들이 가장 약하게 지각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영역

1) 분석 대상에 속하는 집단의 사례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예 : 5명, 7명)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의 차이 검증

변 인	단순노무직 근로자 (n=50)	기능관련 근로자 (n=51)	판매직/ 서비스직 (n=32)	자영업자 (n=83)	사무관리직 (n=115)	경영관리 (n=17)	전문직 (n=10)	F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3.41(0.66)	3.60(0.60)	3.47(0.84)	3.55(0.66)	3.72(0.65)	3.74(0.62)	3.66(0.58)	1.62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2.92(0.90)	3.00(0.84)	3.36(0.85)	3.19(0.89)	3.22(0.87)	3.21(0.83)	3.60(0.66)	1.70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3.27(1.04)	3.57(0.82)	3.31(1.06)	3.40(0.89)	3.48(0.88)	3.44(1.04)	3.33(0.60)	0.63
친구같은 아버지	2.42(0.80) b	2.73(0.77) ab	2.70(0.77) ab	2.74(0.77) ab	2.86(0.81) ab	2.69(0.95) ab	3.14(0.83) a	2.08*
상담자 아버지	3.16(0.85) b	3.60(0.73) ab	3.49(1.02) ab	3.47(0.78) ab	3.60(0.76) ab	3.69(3.35) ab	3.95(0.54) a	2.53*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2.96(0.92)	3.00(0.85)	3.10(0.86)	3.26(0.79)	3.30(0.84)	3.35(0.82)	3.33(0.62)	1.66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3.06(0.77) b	3.00(0.97) b	2.77(0.80) b	3.06(0.79) b	2.93(0.77) b	3.52(0.71) a	2.77(0.74) b	2.09*
가정적인 아버지	2.92(0.88)	3.28(0.73)	3.03(0.93)	3.19(0.76)	3.25(0.81)	3.03(0.88)	3.55(0.39)	1.72
삶에 지친 아버지	2.79(0.79)	2.65(0.77)	2.78(0.87)	2.77(0.84)	2.54(0.76)	2.69(0.92)	2.61(0.89)	1.00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3.75(0.78)	3.86(0.70)	3.77(1.02)	3.93(0.73)	3.98(0.77)	3.97(0.63)	3.86(0.63)	0.72

* $p < .05$ ** $p < .01$ *** $p < .001$, a, b, c, 는 Duncan 사후 검증

에서 나머지 아버지의 직업에 해당하는 기능관련 근로자, 판매직/서비스직, 자영업자, 사무관리직,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은 전문직 보다는 낮고, 단순노무직 근로자보다는 높지만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버지가 경영 관리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다른 집단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4〉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의 차이 검증

변 인	불 교 (n=59)	기독교 (n=78)	천주교 (n=25)	무 교 (n=220)	F
	M(SD)	M(SD)	M(SD)	M(SD)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3.70(0.63)	3.66(0.70)	3.61(0.77)	3.54(0.65)	0.98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3.34(0.85)	3.19(0.90)	3.23(0.84)	3.10(0.87)	1.10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3.60(0.94)	3.39(0.80)	3.38(0.95)	3.38(0.93)	1.92
친구같은 아버지	2.91(0.84)	2.75(0.83)	2.77(0.83)	2.66(0.79)	0.72
상담자 아버지	3.67(0.84) a	3.65(0.76) a	3.56(0.83) ab	3.42(0.83) b	2.42*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3.16(0.84)	3.30(0.81)	3.09(0.91)	3.14(0.86)	0.74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3.09(0.71)	2.89(0.79)	3.24(0.78)	2.97(0.84)	1.60
가정적인 아버지	3.28(0.82)	3.20(0.87)	3.34(0.73)	3.11(0.79)	1.32
삶에 지친 아버지	2.81(0.80) a	2.44(0.86) b	2.45(0.68) b	2.73(0.79) a	3.28**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3.97(0.78)	3.97(0.74)	4.03(0.81)	3.81(0.77)	1.52

* $p < .05$ ** $p < .01$ *** $p < .001$, a, b, c, 는 Duncan 사후 검증

〈표 5〉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의 차이 검증

변 인	중 졸 (n=43)	고 졸 (n=217)	전문대졸 (n=17)	4년제졸 (n=105)	대학원 이상 (n=12)	F
	M(SD)	M(SD)	M(SD)	M(SD)	M(SD)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3.56(0.75)	3.54(0.68)	3.65(0.65)	3.71(0.64)	3.80(0.62)	1.09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3.00(0.96)	3.16(0.89)	3.41(0.70)	3.21(0.82)	2.96(0.78)	1.06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3.39(1.11)	3.41(0.89)	3.73(0.88)	3.47(0.91)	3.53(0.85)	0.66
친구같은 아버지	2.28(0.73) bc	2.69(0.75) ab	2.82(0.63) ab	2.93(0.85) a	2.41(0.80) b	7.05***
상담자 아버지	3.39(0.98) b	3.43(0.81) ab	3.50(0.67) ab	3.68(0.75) a	3.70(0.68) a	2.35*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3.06(0.99)	3.17(0.86)	3.33(0.89)	3.24(0.77)	3.08(0.96)	0.70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2.97(0.87)	2.93(0.81)	3.27(0.81)	3.09(0.82)	3.33(0.84)	1.75
가장적인 아버지	3.16(0.92)	3.13(0.79)	3.36(0.74)	3.22(0.83)	2.80(0.75)	1.44
삶에 지친 아버지	2.75(0.83)	2.66(0.82)	2.89(0.86)	2.65(0.80)	2.66(0.94)	0.57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3.95(0.87)	3.86(0.77)	3.96(0.77)	0.77(0.77)	3.88(0.83)	0.16

* $p<.05$ ** $p<.01$ *** $p<.001$, a, b, c, 는 Duncan 사후 검증

〈표 4〉는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청소년의 아버지 상(像)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아버지 상(像)의 하위변인 중 상담자 아버지($F=2.42, p<.05$)와 삶에 지친 아버지($F=3.28,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종교가 불교와 기독교인 경우,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상담자와 같은 사람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천주교, 무교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종교를 가진 경우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아버지를 상담자 같은 사람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독교와 천주교 종교를 가진 경우, 불교와 무교인 경우보다 청소년 자녀들에게 삶에 지친 모습으로 덜 비쳐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5〉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아버지 상(像)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아버지 상(像)의 하위변인 중 친구 같은 아버지($F=7.05, p<.001$)와 상담자 아버지($F=2.3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인 청소년들이 아버지를 친구 같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가장 높게 형성하였고,

고졸과 전문대졸, 중졸, 대학원 졸 이상순이었다. 다시 말해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은 아버지들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사람으로 가장 강하게 비쳐지나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친구같은 아버지로 가장 약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자 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 이상이거나 4년제 졸업 이상인 경우에 가장 강하였고, 전문대, 고졸, 중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들은 아버지를 한 사람의 상담자로 지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다.

2.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아버지 연령, 직업, 종교, 학력)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의미 분석²⁾

〈표 6〉은 의미분석법에 의해 추출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아버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

2) 본 연구에서는 의미 분석법에 의한 이미지 차원을 해석함에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 평가, 활동성 이미지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6〉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아버지 연령, 직업, 종교, 학력)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의미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하위범주	능력차원 M(SD)	평가차원 M(SD)	활동성차원 M(SD)
아버지 연령	35-39세(n=22)	2.31(0.49)	1.96(0.54)	2.43(0.72)
	40-44세(n=131)	2.19(0.75)	1.95(0.79)	2.31(0.74)
	45-49세(n=158)	2.18(0.77)	2.02(0.79)	2.52(0.76)
	50-54세(n=47)	2.15(0.82)	2.05(0.79)	2.50(0.89)
	F	0.22	0.28	1.77
아버지 직업	단순노무직(n=50)	2.37(0.67) a	1.98(0.86)	2.31(0.78)
	기능관련/기계조작(n=49)	2.12(0.72) ab	2.09(0.84)	2.40(0.82)
	판매직/서비스직(n=32)	2.28(0.81) a	2.07(0.81)	2.34(0.76)
	자영업자(n=83)	2.23(0.73) a	2.01(0.76)	2.39(0.77)
	사무/기술직(n=113)	2.10(0.81) ab	1.94(0.81)	2.50(0.75)
	경영관리직(n=17)	1.74(0.59) b	2.00(0.65)	2.19(0.76)
	전문직(n=10)	1.92(0.68) b	1.81(0.81)	2.70(0.45)
F	2.24*	0.29	0.80	
아버지 종교	불교(n=59)	2.23(0.79)	1.97(0.67)	2.63(0.84) a
	기독교(n=78)	2.17(0.78)	1.90(0.85)	2.42(0.76) b
	천주교(n=25)	2.25(0.69)	2.16(1.00)	2.57(0.79) a
	무교(n=220)	2.19(0.76)	2.03(0.81)	2.35(0.75) b
F	0.08	0.78	2.46*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n=43)	2.36(0.70) a	1.83(0.79)	2.42(0.78)
	고등학교 졸업(n=215)	2.27(0.75) ab	2.04(0.83)	2.44(0.78)
	전문대학 졸업(n=17)	2.37(0.68) a	2.15(0.81)	2.47(0.64)
	대학교 졸업(n=104)	1.92(0.74) bc	1.97(0.76)	2.34(0.79)
	대학원 졸업 이상(n=12)	1.75(0.53) c	1.88(0.85)	2.41(0.76)
F	9.28***	1.22	0.56	

* $p < .05$ ** $p < .01$ *** $p < .001$, a, b, c, 는 Duncan 사후 검증

라 차이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 아버지 이미지의 능력 차원은 직업 ($F=2.24, p < .05$)과 학력 ($F=9.28, p < .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활동성 차원은 종교($F=2.46, p < .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경영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청소년 자녀들로부터 능력차원을 가장 높게 지각되었고, 다음이 기능 관련직과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였으며, 자영업자, 판매, 서비스직, 그리고 단순 노무직 아버지들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능력 차원 이미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또,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종교가 무교와 기독교인 경우, 천주교와 불교인 아버지보다 더 활동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아버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0가지 구체적인 아버지 상(像)과 아버지 의미에 대한 능력, 평가, 활동성 이미지 차원에 대해 아버지의 연령, 직업, 종교, 학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아버지 상(像)과 의미에 영향을 준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친구 같은 아버지와,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그리고 삶에 지친 아버지 상(像)에 영향을 주었다. 즉,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처럼 느끼고,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지치고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율적인 태도를 보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상형자(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신이나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조선화, 1999)와 아버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고,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친구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연구들(박선이, 1991; 정옥분 등, 1997)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아버지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아버지를 친구같은 공감대가 많은 편안한 존재로 생각하기 보다는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로 여기며 높고 쇠약해져가는 외적 모습을 통해 삶에 지친 아버지로 떠올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직업은 친구 같은 아버지와, 상담자 아버지, 그리고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상(像)과 의미분석에서 능력있는 아버지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 즉,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친구 같고, 상담자 같으며, 능력있는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감이 전문직일수록 높고, 단순직종일수록 낮다고 보고한 연구(조선화 2001)와,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이 높다는 연구들(민현숙, 1997; 박영애·인영옥, 1998; 이성희·한은주, 1998; 이신숙, 1988)과도 일맥상통한다. 위의 결과 직업수준이 높은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의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역할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구나 상담자와 같은 편안하고 좋은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는 달리 아버지가 경영 관리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로 가장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고 다른 집단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경영, 관리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은 직업의 특성 상 늘 시간에 쫓기고, 귀가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직업 내에서의 대인관계방식을 가정에서도 나타내어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아버지의 직업의 영향이 자녀의 아버지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로 지각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이 깊어 상담을 의뢰해 오거나 부모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참여를 원할 때 그들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고 갈등의 원인을 찾는 데 좋은 이론적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종교는 상담자 아버지와 삶에 지친 아버지 상(像)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종교가 불교와 기독교인 경우,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상담자와 같은 사람으로 가장 높게 지

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천주교, 무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종교를 가진 경우, 특히 기독교를 믿는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조선화, 2001)와 종교를 가진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보다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고(정말순·오선주, 1998), 더 부드럽고 온화한 행동을 한다는 연구(박영애·이인옥, 1998)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독교와 천주교 종교를 가진 경우, 불교와 무교인 경우보다 청소년 자녀들에게 삶에 지친 모습으로 덜 비쳐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기독교나 천주교일 때 더 능력있는 사람으로 지각된다는 연구(김영희·최명선 2001)와 유사한 의미이다. 또, 아버지 의미분석에서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종교가 무교와 기독교인 경우, 천주교와 불교인 아버지보다 더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가 종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의 이미지를 달리 느낀다고 보고한 김영희·최명선(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위의 결과로부터 아버지의 종교는 청소년 자녀에게 아버지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힘든 삶을 이겨내는 모습, 보다 활동적으로 삶을 생기있게 살고 있는 모습에 영향을 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종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에게 기대고 힘을 얻는 모습은 아버지가 삶에 덜 지치고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로 느끼도록 하였고 종교생활 중의 교인과의 관계나 활동은 아버지를 활동적인 사람으로 느끼도록 하였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학력은 친구 같은 아버지와 상담자 아버지 상(像)과 아버지의 의미분석에서 능력차원에 영향을 주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인 청소년들이 아버지를 친구 같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가장 높게 형성하였고, 고졸과 전문대졸, 중졸, 대학원 졸 이상 순이었다. 다시

말해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은 아버지들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사람으로 가장 강하게 비쳐지나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친구 같은 아버지로는 가장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가 4년제 대학의 교육경험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대화 주제가 많고,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공감대를 잘 형성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는 청소년 자녀가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와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는 생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담자 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 이상이거나 4년제 졸업 이상인 경우에 가장 강하였고, 전문대, 고졸, 중졸 순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들은 아버지를 상담자 같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나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조언을 얻으며 아버지를 한 사람의 '능력있는' 상담자로 기대고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조선화, 2001)와 유사한 결과로, 학력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이나 진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이를 자녀와 공유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더 순조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선화, 2001). 또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김광웅·이인수, 1998; Volling & Belskey, 1991)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친구나 상담자와 같은 편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아버지 직업에

대한 것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력이 곧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직일수록 학력이 높고 비전문직일수록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다(조선화, 2001)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전문적인 직업은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친구나 상담자 같은 아버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배경 변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외에 아버지의 연령이나 종교도 자녀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즉, 청소년들은 아버지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 아버지의 배경 변인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직업이나 교육정도와 상관없이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녀의 욕구나 발달특성,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가나 지역사회는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삶의 본보기나 길잡이와도 관계가 있다. 그들이 좋은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부모역할과 성역할을 배우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또, 훌륭한 부모 상(像)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에 하나의 믿음직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청소년의 아버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을 찾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몇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특정 연령대나, 직업이나 종교, 학력에 대해 과대 해석하

였을 소지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직업, 종교, 학력이라는 4개의 변인만을 분석하였다는 점도 큰 제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상(像)이라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속성을 두개의 도구에 의존하여 측정해내어 결과를 해석하였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아버지의 배경변인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아버지 이미지를 측정하는 더 많은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의 연구와 어떠한 과정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질적 방법론을 통해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광웅 ·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미란(1986).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 요인.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1985). 아버지의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1990). 유아기 아버지의 역할수행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1995)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아버지 역할 내용분석. *대한 가정학회지*, 33(5), 153-166.
- 김명희(1996). 父親 이미지에 대한 세대간 요인구조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 · 최명선(2001). 의미분석법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이미지 연구. *한국놀이치료 연구*, 4(2).
- 김종서 · 남정걸 · 정지웅 · 이종환(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 론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희숙(1996). 두자녀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옥(1983)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현숙(1997).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 수준과 역할 수행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이(1991). 5월은 가정의 달 : 아이들과 함께 노는 아빠들. 조선일보, p13.
- 박영애 · 인영옥(1998).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이상적 양육행동과 실제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연구. *교육연구(한남대학교)*, 6(1), 81-101.
- 상형자(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6). *발달심리학*. 학지사.
-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수행 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83). *가족 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이성희 · 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신숙(1988). 아버지의 양육 역할과 가치관.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동환(1964).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 9집.
- 정말순 · 오선주(1998). 아버지의 인성특성 및 청소년기 배경변인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4, 27-51.
- 정순화 · 김시혜(1996). 동시를 통해 본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한국아동학회지*, 17(2).
- 정문자(1990). *부모교육원리와 방법*. 서울 : 교육과학사.
- 정옥분 · 김광웅 · 김동춘 · 유가효 · 윤종희 · 정현희 · 최경순 · 최영희(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18(1), 81-108.
- 정은주(1990).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모, 아동의 지각.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1998)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상(像)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화영(1993).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가족환경변인이 아버지의 만족감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청소년 초기의 두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 79-98.
- _____ (200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만족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연구*, 4(2), 41-57.
- 조선화 · 최명선(2004).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5(6), 53-68.
- 최명선(1998). 경제위기하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구조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선아(1996).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유아기 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1988). Father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 Psychology*, 24(1).
- Lamb, M. E. (1987). *The Father's Role : Cross-cultural Perspectives*. London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niv. Illinois Press.
- Pleck, J. H. (1984). *Working wives and family well-being*. 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 Rosenblatt, P. C. (1974). Behavior in public pla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 36.
- Volling, B. L., & Belsky, J.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61-474.

2005년 4월 30일 투고 : 2005년 6월 20일 채택